

나주 혁신산단에 전남 첫 리튬이온배터리 완제품공장 착공

엘씨엠에너지솔루션, 2000억 들여 2023년 완공 국내 5대 메이저급...250여명 고용 창출 기대

지난 4일 (주)엘씨엠에너지솔루션이 나주 혁신산단에 전남지역 첫 리튬이온배터리 완제품 공장 착공식을 가졌다.

착공식에는 이병홍 엘씨엠씨어스 회장, 이슬찬 (주)엘씨엠에너지솔루션 대표, 김영록 전남지사, 신정훈 국회의원, 이현빈 한전 부사장, 강인규 나주시장, 이민준·최명수 전남도의원, 나주시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엘씨엠에너지솔루션의 리튬이온배터리 완제품 공장은 국내 5대 메이저급으로 25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 제정 이후 첫 대규모 투자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 공과대 파급 효과가 본격 시작됐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신설법인 (주)엘씨엠에너지솔루션은 혁신산단 3만5000㎡ 부지에 2000억원을 투자해 해양용·휴대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1GWh 규모 이차전지 배터리 완제품 제조공장을 오는 2023년까지 구축한다.

현재 구축 중인 광양만권 중심의 전기차용 배터

리 양극제·리튬·리사이클링 등 소재 분야 클러스터와 이번 나주 완제품 공장이 준공되면 전남은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게 된다.

전남도는 앞으로 (주)엘씨엠에너지솔루션을 지역 비교우위 산업인 신재생에너지, e모빌리티, 드론 등 분야와도 긴밀히 연계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다변화를 촉진하는 등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엘씨엠에너지솔루션은 수십 명의 석박사급 자체 연구소도 설립해 지역 에너지신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혁신산단 인근에 조성될 에너지 국가산단에 증설 투자해 시설 규모화를 이끌어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도 내놨다. 이슬찬 대표는 "글로벌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개교로 고급 인력 확보가 수월하게 된 데다 한전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을 특화하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전남에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나주 혁신산단에서 개최된 (주)엘씨엠에너지솔루션의 전남 최초 리튬이온배터리 완제품 공장 착공식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참석자들과 착공버튼을 누르는 세레머니를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덴마크와 손잡고 8.2GW 해상풍력 속도낸다

해상풍력 공동협력 업무 협약

전남도가 지난 4일 주한덴마크대사관, 베스타스, 씨에스윈드와 해상풍력 사업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8.2GW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이이나니 엔센 주한덴마크대사, 헨릭 앤더슨 베스타스 회장, 김성권 씨에스윈드 회장, 아랍 홀스 CIP 회장 등 세계 유수의 해상풍력 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주한덴마크대사관은 해상풍력, 수소산업 등 재생에너지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베스타스와 씨에스윈드는 전남 해상풍력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공동 협력한다.

이번 협약식은 해상풍력 강국인 덴마크와의 글

로브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최초로 글로벌 해상풍력 선도기업인 베스타스, 씨에스윈드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전남 해상풍력 성공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덴마크 기업인 베스타스와 국내 기업인 씨에스윈드는 해상풍력 발전 핵심부품인 터빈과 타워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다. 전남의 대규모 사업 물량을 기반으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CIP는 세계적 해상풍력 투자·개발 전문회사다. 전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국내 발전사와 공동 참여하는 등 사업 성공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달 말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대통령과 덴마크 총리가 기후·환경 분야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하며,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협력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전남의 8.2GW 해상풍력 사업 추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헨릭 앤더슨 베스타스 회장, 김성권 씨에스윈드 회장은 "전남에 터빈과 타워 공장을 설립해 베스타스의 세계적 기술력을 현지화하고, 해상풍력 생산공급망을 구축해 전남이 글로벌 풍력 발전 중심지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지사는 "전남의 8.2GW 해상풍력은 우리나라가 세계 해상풍력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사업 성공을 위해 해상풍력 강국인 덴마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며 "덴마크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는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하는 전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지방재정 발전 방안 모색

전남재정정책포럼 출범

전남도는 지난 4일 지방재정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 19명을 위원으로 하는 전남재정정책포럼을 출범, 지방재정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전남재정정책포럼은 전남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재정분권, 세계개편 등 지방 재정환경 변화 속에서 건설한 재정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 자문기구 역할을 한다.

이날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개최한 제1회 전남재정정책포럼에서는 지방재정분권 동향과 전남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가 펼쳐졌다. 발제자로 참여한 박관규 대한민국의도시사학회 회장은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동향과 과제"로, 임상수 조선대 교수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남도 재정분권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박병희 순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 이재원 부경대 교수, 최원구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원, 조기현 지방

행정연구원 실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에서 재정분권을 추진할 때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목표로 삼았지만 1단계 재정분권 결과 오히려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가 심화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는 정부가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3조6000억원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일부 사업을 지방이양하면서 그 재원을 3년간만 한시 보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농어촌과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균등 이양사업을 최소 5년 이상 연장하는 등 1단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의 취득세 감면 보전분을 폐지하고, 그 재원을 균등 전환사업 재원 보전 용도로 활용하는 등 세수 불균형 완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률적인 재정분권을 지양하고, 지자체 간 재정력을 고려한 '차등적 분권' 또는 '맞춤형 분권'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현석 기자 chadol@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병가 확대·돌봄휴가 신설

광주시 처우개선...7일부터 시행

광주시는 "2023년까지 적용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확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71억원을 투입해 적정 인건비 준수와 보수 체계 일원화, 임금 후속이 조화를 이루는 근로환경 조성, 종사자 안전과 건강권 보장강화,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 지원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적용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61개 복지시설 종사자 3300여명이다. 국비 시설 인건비를 2023년까지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충족하도록 했다.

또 유급 병가를 10일에서 60일까지로 확대하고 자녀 돌봄 휴가(연 2일), 장기근속 휴가(5~10

일)를 신설한다. 광주시는 휴가 공백에 대비해 다양한 직종의 인력풀을 확보하려고 10일까지 대체 인력 희망자를 모집해 7월부터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감정 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2023년까지 매뉴얼과 피해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복지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종사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근로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처우 개선을 통해 복지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북한이탈주민 '상생카드' 지원

광주시는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게 광주상생카드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광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제안한 탈북민 지원 사업 중 하나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1차 지급 대상은 60명이며, 1인당 10만원이 지원된다.

광주시는 북한이탈주민 광주지역적응센터에 의해 최근 2년 내 최초 전입자와 지원을 더 필요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위주로 선정했다.

광주상생카드는 광주지역적응센터를 통해 이달까지 배부한다. 광주에는 5월 말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 571명이 거주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회

행복이벤트

응모기간 2021년 3월 8일 ~ 12월 31일 **추첨** 2022년 정기총회(22년 1월 예정) **행시대상** 신규 및 기존 거래자

응모방법 유니온 정기적금개설, 체크카드20만원 이상 이용, 출금자동이체, 신탁 공제가입, 공과금자동이체 및 계좌이동제, 신탁제휴카드발급, 사업자 결제계좌, 연금자동이체, 사회적 예탁금 등

※ 중복응모가능, 동일 항목당 최대 2매까지(응모방식은 창구방문)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2개월 연 1.7% 세전 / 만기해지

18개월 연 1.77% 세전 / 만기해지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출자금은 예금저축보통예대상이 아니고 조합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예탁금 및 저금은 신탁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합니다.
- 5)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6)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탁회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등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1명

2등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2명

3등 제주도 2박3일 숙박이용권 5명

4등 키친아트 에어프라이어 15명

5등 테팔 세프드프랑스 프라이팬 100명

※ 제세공과금(22%)은 당 신탁이 부담하며, 경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탁회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266-4150 (광주 북구 문신로 38)

매곡지점 572-4150 (북구 설죽로 315번길1)

양산지점 573-4150 (북구 양산로 59)

침단지점 576-4150 (북구 침단천로99번길29-2)

운암지점 528-4150 (북구 북문대로 88)

동광주지점 264-4150 (북구 동문대로 187)

동림지점 513-4150 (북구 북문대로 238)

각화지점 263-4150 (북구 동문대로 283, 285)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회

신원중앙빌딩 3층 제2021-6호(2021.05.28.) 유효기간 2021.12.31.까지